

##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 설립이념

1945년 3월 말, 역사상 보기드문 격렬한 전쟁의 불꽃이 이 섬을 뒤덮었습니다. 90일간 계속된 철의 폭풍은 섬의 모습을 바꾸고,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파괴하였으며, 20여만 명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오키나와전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현민을 총동원한 지상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오키나와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일반주민의 전사자가 군인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으로, 그 수는 10수만명에 이르렀습니다. 포탄에 날려 목숨을 잃은 사람, 막다른 곳까지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사람은 기아와 말라리아로 쓰러진 사람, 또 패주하는 일본군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부조리와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전쟁의 체험이야말로 곧 전후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지배의 중압에 저항하면서 쌓아 온 오키나와의 마음의 근원입니다. "오키나와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존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성의 발로인 문화를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전쟁의 희생이 된 많은 영혼을 달래며, 오키나와전의 역사적 교훈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전하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여, 더욱더 영구적인 평화를 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여기에 현민 개개인의 전쟁 체험을 모아 오키나와현 평화기원 자료관을 설립하였습니다.

1975년(2000년 4월 1일 일부 수정)

오키나와현



(구평화기원자료관)



## 교통안내

### ■버스편

①나하(버스터미널)→이토만(버스터미널)

버스번호: 89번  
요금: 500엔(편도)  
편수: 20분에 한편

②갈아타기: 이토만→교쿠센도

(버스터미널) (평화기원당입구 하차)  
버스번호: 82번  
요금: 400엔(편도)  
편수: 1시간에 한편

### ■택시편

①나하→이토만 마부니(평화기원공원)

거리: 약22km  
요금: 3000~3500엔(편도)

## 견학안내

■개관시간: 오전9시~오후5시

(단, 상설전시실 입실은 오후 4시 30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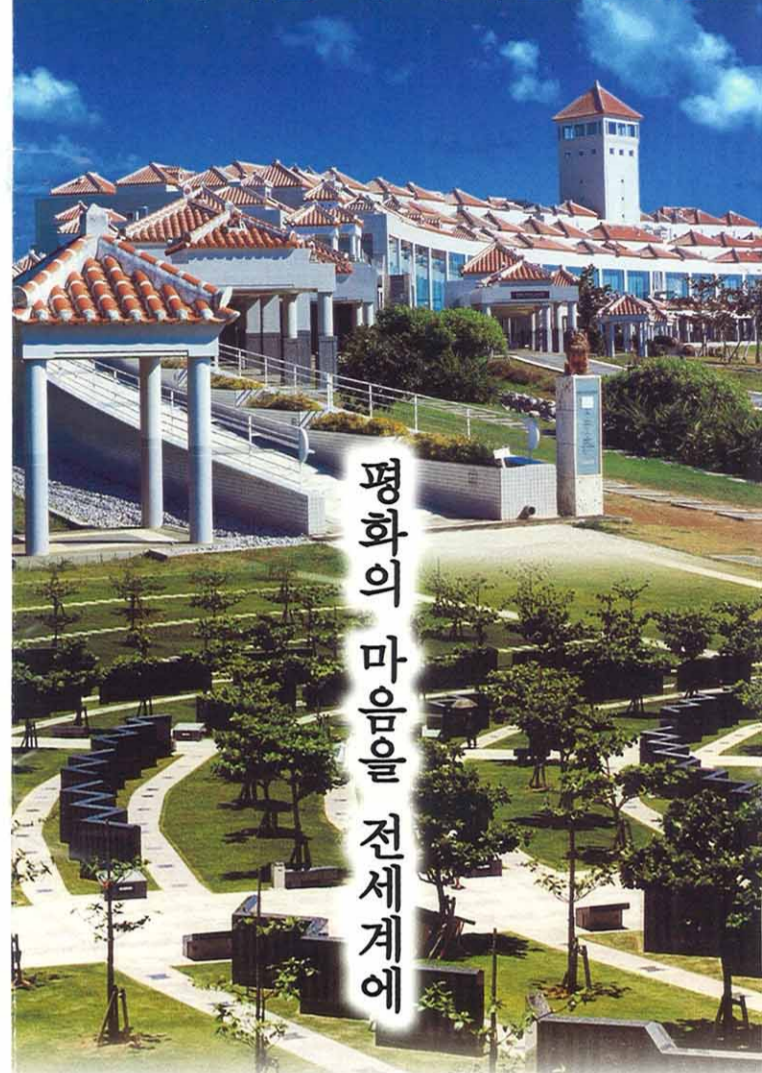
■휴관일: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

###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20명 이상)
대인	300엔	240엔
소인	150엔	100엔

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

##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



평화의 마음을 전세계에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  
901-0333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 614-1  
TEL(098)997-3844 FAX(098)997-3947

## 자료관 안내

### ■현관홀

평화의 초석과 평화기원공원을 방문한 분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화기원홀

계단식인 231석의 고정석으로, 강연회, 영사회, 연극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의실

교실형식으로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중과 소로 나누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획전시실

255㎡의 넓이로 전시케이스, 전시판넬을 구비하고 있어서, 사진전이나 회화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관

정보관에서는 평화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서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것 외에, AV부스에서는 전쟁체험자의 증언과 평화에 관한 비디오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검색코너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조작으로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수장품과 도서문헌의 정보, 전시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정보, 평화학습의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라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검색코너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장품, 도서문헌, 시청각 자료를 비롯, 전시실의 상세한 해설정보, 평화학습의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가 모니터 화면에 손을 대기만하면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AV부스

5개의 AV부스에서는 전쟁체험자의 증언과 평화에 관한 비디오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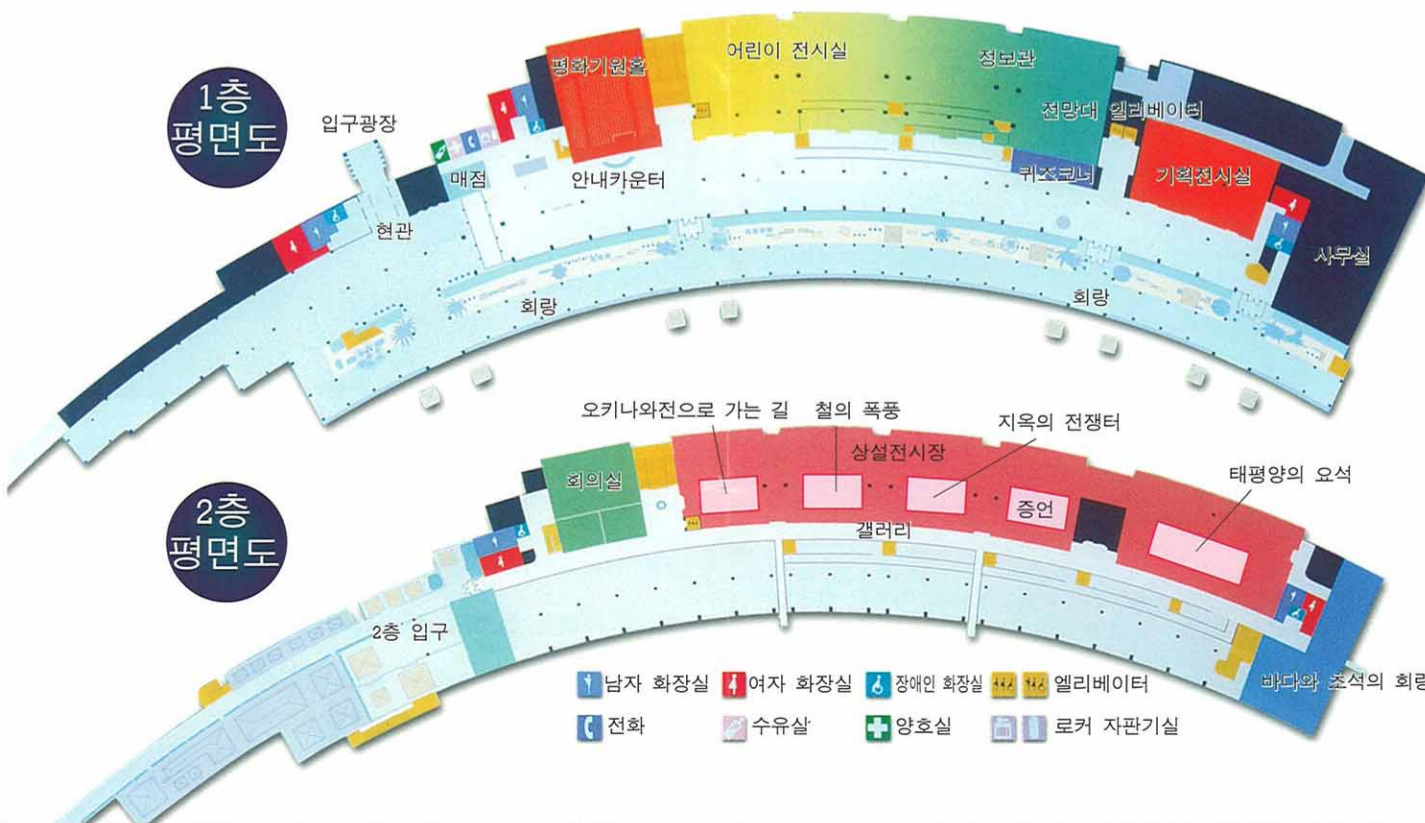
### ■퀴즈코너[?]

오키나와에 관한 다양한 퀴즈에 대답하는 코너입니다. 오키나와전쟁,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각 초급 중급 고급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모니터 화면에 손을 대기만 하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F 미래를 전망하는 코너 (어린이 전시실)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어린이 전시실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생명은 보물 세계의 어린이들!」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18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생활, 친구, 놀이 등을 물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쟁 분쟁, 집단폭행에 의한 인권문제, 심각한 자연환경 문제 등 세계적인 또는 가까이에 있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하게 하는 코너입니다. 「어린이 놀이마당」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놀이를 통해 공통성을 발견하고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친구들과 함께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 각국의 어린이들 18명이 방문객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줍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코너의 하나인 「사라지지 않는 빈곤」

제3전시실 주민이 본 오키나와전.

지옥의 전쟁터

일본수비군은 슈리결전을 피해 남부로 철퇴, 지구전을 택했다. 그 후 미군의 강력한 소탕작전으로 막다른 곳까지 몰리다 파멸했다. 결국 군인과 주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방공호에서 방공호로 도망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비참한 전쟁터로 변했다. 방공호 안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과 강제적인 집단사와 기아, 밖에서는 박격포, 화염방사기 등에 의한 살육이 있어 마치 아비규환의 지옥과 같은 세계였다.



동굴 속으로 피난한 주민, 아기의 입을 막는 어머니, 그리고 위협하는 일본군



전쟁터에서 희생이 된 사람들의 대형사진과 포탄과 화염분사기로 새까맣게 타버린 당시의 의복



2F 역사를 체험하는 코너

프로로그

일찌기 류큐의 조상은  
평화를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써  
바다를 건너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맺었다  
바다는  
풍부한 생명의 근원이며  
평화와 우호의 가교로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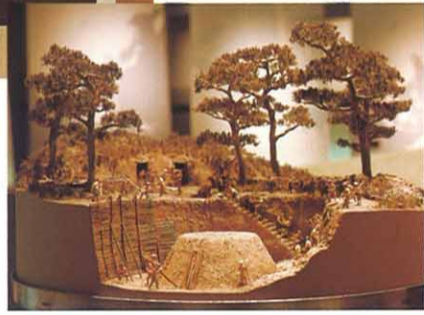
제1전시실 오키나와전으로 가는 길

메이지 정부는 류큐왕부에 대하여 무력으로 『류큐처분』을 단행했다. 그에 따라 오키나와현은 황민화정책에 의하여 급속히 일본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근대화를 서두르는 일본은 부국강병책에 따라 군비를 확장하고, 인근 국가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여 오키나와는 15년 전쟁의 최후의 결전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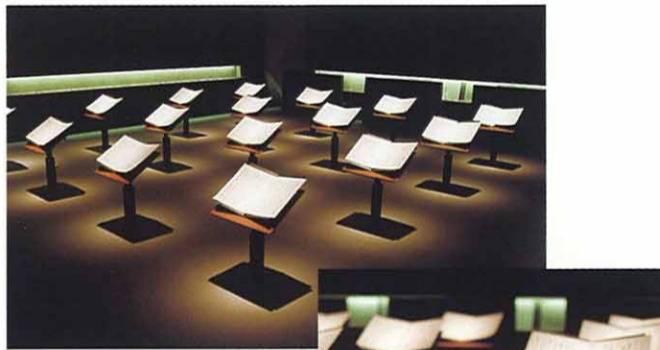
메이지, 다이쇼, 쇼와 초기의 오키나와 사람들의 표정과 도시와 시골의 풍경이 세개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펼쳐집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행해진 비행장 건설과 진지구축의 모형.



제4전시실 주민이 본 오키나와전. 증언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말할 때 물적자료가 되는 것은 매우 적다. 원통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체험한 주민에 의한 증언 밖에 없다. 생각하고 싶지않은 기억에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무거운 입으로 부터, 후세에 전하려고 계속 이어지는 여러가지 증언은 역사의 진실 그것이다.



오키나와 각지, 소개지, 이민간 나라에서의 전쟁체험을 증언하는 방. 증언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마치며」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접할 때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토록 잔인하고 이렇게 오욕투성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생한 체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전쟁을 긍정하고 미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 인간이 아닐까요  
전후이래 우리들은  
모든 전쟁을 원망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확고한  
우리들의 신조입니다

제2전시실 주민들이 본 오키나와전. 철의 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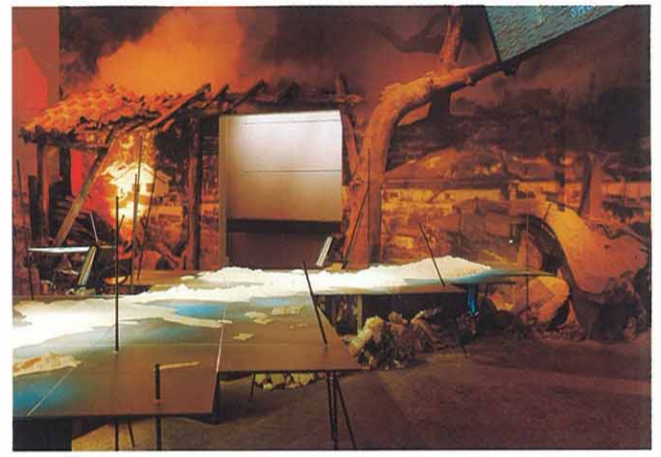
오키나와전에서 미 일 양쪽의 군대는 총력을 기울여 사투를 펼쳤다. 미군은 물량작전에 따라 오키나와 본토 중남부에 무차별적인 공습과 함포사격을 가하여 엄청난 포탄을 쏟아냈다. 이 『철의 폭풍』은 약 3개월에 걸쳐 오키나와의 모습을 크게 바꾸고, 군인과 주민 2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낼 만큼 처참했다.



오키나와전의 모든 것과 지역별 전투 과정이 대형 스크린, 모니터,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입체지도 속에서 전개됩니다.



입체지도의 윗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오키나와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입체지도의 주변에는 파괴된 민가와 건물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제5전시실 태평양의 요석

오키나와의 전후는 수용소로부터 시작됐다. 그 후 미 소를 축으로 한 냉전구조 속에서 군사기지로서 강화되어 가는 오키나와. 토지를 빼앗기고, 많은 억압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분노는 곧바로 섬 전체의 복귀운동으로 확대되어 간다. 동서냉전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중의 비극. 오키나와의 교훈은 평화의 요석을 통하여 세계로 전파된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 때 쯤의 기지촌. 미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영업하는 바와 상점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상점의 내부.